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5월 18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시립박물관	담당자	• 전시교육부장 배성수 ☎440-6731 • 담당자 이성용 ☎440-673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예작가 김삼현의 전시
“한글은 가장 한국적인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 한글의 조형적 독창성 강조한 <한글>展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에서 개최 -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30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에 위치한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한글>展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도예작가 김삼현의 대관 전시로 작품을 통해 한글이 지닌 독창성과 조형적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기획됐으며 한글의 높은 가치와 조형예술영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작품에 담아냈다.

인천시청역 지하3층 1, 9번 출구 앞 ‘열린박물관’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지하철이 운행되는 시간에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열린박물관’은 지난해 6월 25일 인천시립박물관과 인천교통공사 간의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인천시립박물관이 위탁 운영 중이다. 특별한 관람 제한 없이 인천 시민에게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동현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우리말 한글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와 언어로 이번 전시회가 관람객에게 한글에 대한 큰 자부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 “시민들께서 한글의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탄생한 작품 감상을 통해 바쁜 일상 중에 작은 쉼을 갖길 바란다” 고 말했다.(문의: ☎ 032-440-6737)

<붙임> 대표 작품 사진

